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철원

강 욱
자유기고가

철원(鐵原)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이다. 강원도 영서 최북단 평야지대에 놓여있는 철원은 동쪽은 양구군, 서쪽은 경기도 연천군, 남쪽은 화천군과 경기도 포천군과 접하여 있고 북쪽은 휴전선이 지나는 전방지역이다. 후삼국시대 태봉국의 도읍지로 고려 건국의 발상지인 철원은 다양한 문화유적들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철원 땅은 금강산에서부터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서남쪽으로 뻗어내린 광주산맥을 등받이처럼 동쪽에 대고 서울에서 원산에 이르는 추가령지구대를 서쪽으로 바라보며 기름기 흐르는 살찐 몸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평야지대이다. 따라서 철원군은 백암산을 포함한 높이가 1,000 미터에 가까운 산들이 떠를 이루며 솟아 있는 동쪽을 빼면 거의 모든 땅이 낮은 언덕과 넓은 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를 따라 서해로 흘러드는 임진강의 상류인 한탄강이 철원군의 젖줄 구실을 하며 세로 흐른다. 비옥한 철원평야는 강원도 제1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된다. 특히 ‘철원오대쌀’은 선도가 높고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철원은 한국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전쟁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155마일 휴전선 중 43.6마일(28.1%)이 철원군에 해당된다. 드넓은 철원평야는 현대 역사에서 이 나라가 겪었던 혼란을 그대로 맛보아야 했다. 육이오 전쟁 동안에 가장 치열했던 싸움터에 들던 곳이 철원평야를 가운데에 두고 철원군과 김화군과 평강군을 이은 사이인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였다. 이곳에서 벌어진 큼직큼직한 싸움은 수도고지 전투, 지형 능선 전투, 백마고지 전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철원평야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산봉우리인 백마고지에서 벌어진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그 달 15일 까지 열흘 동안에 벌어진 싸움은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세워진 ‘백마고지 전투 전적비’에 적힌 대로 포탄 가루와 주검이 쌓여서 무릎을 채울 만큼 격렬했다. 높이가 395 미터인 이 산봉우리는 열흘 동안에 임자가 스물 네 차례나 바뀌면서 만사천명에 가까운 군인이 죽거나 다쳤고 쏟아진 포탄만 해도 삼십만 알이 넘었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도가 1914년에 깔림으로써 철원군은 강원도에서 맨 먼저 기차가 다니던 지역 이었다. 경원선은 제국주의 일본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나는 쌀, 콩, 명주실 같은 것을 제 나라로 싣고 가기 쉽게 하기도 했지만, 이곳 사람들이 서울, 원산, 함흥 같은 큰 도시를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해서 여러모로 편리함을 안겨주었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철책에 근접한 지점에 경원선의 마지막 역인 월정리역이 있다. 역사 바로 맞은 편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간판과 함께 6.25 때 폭격으로 부서진 열차의 잔해가 영성한 골격을 드러낸 채 누워있어 분단의 아픔을 실감케 한다.

한탄강의 거친 물줄기만큼이나 치열한 전쟁을 치른 최전방 월정리역 맞은편에는 1989년 ‘철의 삼각 전적지’가 조성되어 국내 최대의 안보관광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대남 도발 현장인 ‘제2땅굴’을 비롯하여 백마고지 위령비와 기념관, 김일성

고지 등 북녘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철의 삼각 전망대가 있다. 또한 공산치하에서 반공인사들을 무참히 탄압하던 노동당 사 건물이 있어 눈길을 끈다.

신철원에서 구철원으로 가려면 한탄강을 가로질러 놓인 승일교(承日橋)라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길이가 120미터이고 높이가 35미터인 이 다리는 해방 뒤에 북한에서 놓은 반쪽에 잇대어 육이오 전쟁이 끝나자 남한에서 나머지 반쪽을 마저 놓아 생긴 것으로, 그때의 대통령이던 이승만과 북한의 김일성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 붙여서 지은 것이다.

한탄강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두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한탄강은 물의 흐름이 급하고 굽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층의 침식으로 물이 깊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므로 곳곳에 깊은 소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다.

고석정은 한탄강 중류인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정자로 지포리 버스정류장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다. 신라 때 진평왕이 세운 고석정은 철원 8경의 하나로 강 중앙에 1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암이 우뚝 솟아 있으며 남한 대륙에서 유일하게 현무암이 분출된 지역이다. 이곳은 조선 명종 때에 경기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활약한 의적 임꺽정이 숨어살면서 그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다는 전설이 널리 전해온다.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임거정(林巨正)은 인물이 출중하고 무술에도 뛰어났으나 등용되지 못하는 울분을 품고 무리를 모아

큰 도적을 조직했다. 고석정(孤石亭)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고 함경도 쪽에서 상납되는 조공(朝貢)을 약탈해 서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조정에서 생포하려고 포졸들이 습격하면 고석정 아래 흐르는 한탄강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 ‘꺼지’로 변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훗날 임거정을 ‘임꺼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서 상류로 약 2km 지점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물의 폭이 100m에 가까운 직탕폭포가 있고 하류 2km 지점에 순담과 넓은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어느 때나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다.

근남면 잠곡리의 북계산에는 조선시대에 이른바 생육신에 들던 김시습이 세조 아래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고 이곳에 와서 숨어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매월대’로 불리는 잘생긴 바위산이 있다. 해발 595m의 산정에 위치한 40m 높이의 층암 절벽을 말한다. 매월대 정상에서 동쪽으로 1km 지점에는 사계절 장관을 이루는 매월대 폭포가 있다.

가마솥처럼 생긴 소 세 개를 이룬 삼부연(三釜淵) 폭포는 철원군청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명성산 중턱의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이 폭포는 사계절 마르지 않는 물과 기이한 바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이곳에서 용이 승천하였다고 하여 동네 이름을 용화동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옛부터 가뭄이 들면 폭포 밑에 단을 차려놓고 기우제를 지냈다.

동송읍 관우리 화개산 품안에 자리잡은 도피안사는 신라 경문왕 5년(865)에 도선

국사가 신도 1천여 명을 동원해 창건한 절이다. 도선국사가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제조하여 수정산에 자리잡은 안양사로 봉안하기 위해 여러 승려들과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이 불상이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승려들을 분산하여 부근 일대를 찾다가 동송면 관우리의 현 위치에 그 불상이 안좌한 자세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선국사는 그 자리에 암자를 짓고 불상을 모셨으며, 당시 철조불상이 영원한 안식처인 피안(彼岸)에 이르렀다 하여 절 이름을 도피안사(到彼岸寺)로 했다고 전해온다.

절 내에는 도선국사가 제조하였다는 국보 제63호인 철조비로사나불좌상과 보물 제223호로 높이 4.1m의 화강암 재료로 된 삼층석탑이 보존되어 있다. 현실 세계의 스님을 보는 듯 친근한 느낌을 주는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은 법의에 얹게 빛은 옷주름이 평행으로 표현되는 등 9세기 후반의 보기 드문 불상으로 평가받는다. 도피안사는 전에는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었으나 현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철원평야는 수많은 철새와 두루미의 겨울 서식처로 유명하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철원평야에는 세계에 모두 450 마리쯤밖에 없다는 겨울 철새인 두루미가 백 마리가 넘게 날아와서 장관을 연출한다. 철원역을 지나 월정리역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내포리 일대는 두루미가 둥지를 틀기에 알맞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구룡지대의 연못으로 약 300년 전부터 철새가 도래했다고 전해지는데 갈대, 당귀 같은

풀과 두루미가 즐겨 먹는 먹이인 미꾸라지, 다슬기 등 곤충 종류가 많아 야생조류가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이다. 1973년 7월 연못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를 천연기념물 제245호로 지정해 철새도래지로 보호하고 있다.

해가 뜰 무렵이면 이곳에서는 두루미의 무도회가 열린다. 수놈이 “꾸룩 꾸룩” 하는 소리를 내며 큰 날개를 활짝 펴고 긴

목을 곧추 세워서 두 다리를 번갈아 쳐들면서 먼저 춤을 추기 시작하면 암놈이 덩실덩실 따라서 춘다. 현재 이곳에 도래하는 철새로는 천연기념물 제202호인 두루미, 제203호인 재두루미, 흑두루미, 여름철새인 백로, 왜가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서 겨울을 난 뒤에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쪽으로 날아간다. 